

## 몽골에서 주고받은 선물

- 권기드온 선교사 / 2003. 7. 4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성산교회와 인터콥의 파송으로 2001년부터 의료사역과 교회사역으로 몽골 현지를 섬기고 있는 권기드온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으며 또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처음으로 받았던 것은 20년 전의 일입니다.

대학 졸업반 시절이었습니다만 당시 제가 아주 좋아하고 따르던 선배 부부가 결혼 직후 이슬람권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힘든 지역이라 해서 함께 지냈던 저희들도 매우 걱정하며 기도함으로 보내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 어르신들도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후원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제 삶의 방향과 초점을 선교에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 그 기도후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선교단체 (지금의 인터콥)와 연결되어 선교소식들을 놓고 기도해가고 있다가 병원수련생활,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인 부산에서 개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산지부를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전을 품고 헌신하는 청년들과 함께 뒹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몽골을 처음 방문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92년도의 일입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사회 경제 환경, 혼란한 영적 상태, 길가에 쓰러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하에서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 대화해보니 모두가 예수그리스도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5년 후에 저의 친 여동생이 몽골로 선교사로 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개설한 밝은미래학교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동생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단기 팀을 이끌고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마다 현지의 사역자들이 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간절히 요청하였고 저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뿐 아니라 가는 선교사로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에 아내와 기도하며 심각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 선교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심에 따라 42세의 늦은 나이긴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떠나는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좋은 언어선생님과 이웃들을 만나 현지 적응에 큰 어려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6개월은 언어에 집중하였지만 그 이후제가 섬기던 구원샘 교회, 밝은미래학교, 연세친선병원 등에서 진료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휴대용 의료장비로 기본적인 진료를 했지만 현지인들은 너무 고마워했고 저 또한 깊은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은 어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의 앞니 잇몸에 생긴 혹을 간단히 마취해서 절제해주었는데, 돌아가다 말고 막 울며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지난 5년 간 잃어버린 웃음을 되돌려주셨습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 때처럼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1년 정도 후에는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물론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몽골어 자체가 우리말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언어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구인들보다 3-4배정도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현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선교지에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내는 몽골의 젊은 무용수들에게 자기 전공인 현대무용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큰 딸은 독학하면서 현지인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와, 한국어 교수로, 둘째와 셋째는 평소에 각자 현지인 학교에 다니면서도 제가 진료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간호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선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 본 것 같은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얼마나 큰 것을 선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선 현지인이 제게 지어준 이름은 빌게에 인데 그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뜻으로 지어주었지만 저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그들을 통해 선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몽골은 남한의 17배에 해당되는 넓은 땅입니다.  
또 250만의 적은 인구임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이웃 나라들과 국경을 접해있는 지역에서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몽골에 거주하는 동안 변방의 도시와 시골들을 방문하고 정탐 및 사역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얼굴과 외형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도 우리나라 옛 시골 사람들처럼 순수하고 친절해서 따뜻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 라고 부르면서, 올림픽과 월드컵의 나라, 몽골인들의 외화획득의 큰 몫을 해주는 경제적 선진국으로 부러워하며 배우려 하기에 한국인으로서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몽골은 한국의 교회가 마땅히 섬겨야 할 제 1호의 선교지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990년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의 길을 걷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혼선, 사회경제적인 부작용들과 함께 전통종교와 사이비 종파들의 침투로 정신적 혼란과 영적인 혼돈 상태가 발생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목사와 선교사를 배출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차 한국인 사역자들과 협력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섬기는 주역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직은 다방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을 섬겨주어야 합니다.  
기도로, 단기선교로, 각종 전문인 사역으로 실로 우리가 담당해주어야 할 몫은 대단히 큼니다. 겸손하고 충성되고 실력 있는 영적 인물들이 몽골을 향해 많이 나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